

필사본 『梅山集』의 구성 및 타인 저작에 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224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Manuscript Collection 『Maesanjip(梅山集)』 and the Works of Other Authors included in the Book: Focused on the Manuscrip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 형 유 (Hyung-yu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타인 저작의 규모 및 특징 |
| 2. 홍직필의 학문적 생애와 『梅山集』 | 5. 결 론 |
| 3. 서지적 특징 및 작품의 규모 | |

초 록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梅山 洪直弼의 필사본 문집 『梅山集』 224책(한고초46-가1088)의 총 수록 작품의 규모와 그 중 매산 외의 저자가 작성한 자료의 목록과 성격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224책에 수록된 작품은 총 3,017題4,454首 10,351편이며 그 중 홍직필의 글이 아닌 것은 제111·147·171·205·218~220·222~224책에 수록된 金鍾厚의 『醒心錄』, 尹鳳九가 작성한 韓元震의 행장 등을 포함한 총 260편이다. 타인저작은 『梅山集』 편찬 시 참고 되던 자료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타인 저작 260편을 제외한 국증본의 작품 수는 총3,017題4,454首 10,091편이며 이를 문체별로 살펴보면 詩는 3,017題4,454首(간본: 詩514題707首/賦3題3首), 疏와 啓는 52편(간본 31편), 書는 8,291편(간본 1,017편), 書贈은 257편(간본 0편), 묘도문자 등 기타 27종의 문체 1,491편(간본 344편)이다. 이를 통하여 국증본 대상으로 작품 분석 및 『梅山集』 편찬 과정을 연구할 경우 타인 저작 260편을 제외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otal number of works at the Hong Jik-pil(洪直弼)'s manuscript collection 『Maesanjip(梅山集)』 (total vol.224)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n identified the list and characteristics of works written by other authors in the 『Maesanjip』. The total number of works of the manuscript 『Maesanjip』 is 3,017poems and 10,090proses, except for 260works created by others. The number of works by genre in the 『Maesanjip』 is as follows: 3,017 poems(詩), 52 appeals(疏啓), 8,290 letters(書), 257 letters for encouragement(書贈), 1,491 epitaphs(墓文). And the 260works by others are listed in vol.111·147·171·205·218~220·222~224 and these works wer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compilation of 『Maesanjip』. Through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when analyzing the works and studying the compilation of manuscript 『Maesanjip』, it should except for the 260 works by others from the book.

키워드: 洪直弼, 梅山集, 필사본, 문집, 醒心錄

Hong Jik-pil, Maesanjip, Manuscript, Collection of Works, Seongsimlok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 수료(hyungyu1979@naver.com / ISNI 0000 0004 7707 0875)
논문접수일자: 2019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345-372,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345]

1. 서론

매산 홍직필(梅山 洪直弼)은 박윤원(朴胤源)¹⁾으로부터 낙론의 도통을 이은 인물로 노주 오희상(老洲 吳熙常)과 함께 조선 후기 기호 낙론을 대표하는 산림학자이다. 관직을 거부하고 학문수양에 몰두했던 그는 임헌회(任憲晦), 조병덕(趙秉惠), 소휘면(蘇輝冕) 등 걸출한 후학을 양성하였고, 그 중 임헌회는 기호 낙론을 계승하여 조선 후기 마지막 성리학자라고도 평가받는 전우(田愚)를 후학으로 이루기도 하였다. 즉, 홍직필의 제자들은 기호학계의 중심인 동시에 한말 도학의 주도자들이었으며 그들 사상의 바탕에는 홍직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홍직필의 인물상, 학문적 관심사 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단연 그의 문집인 『梅山集』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의 문집은 1866년에 목활자본으로 간인된 『梅山集』 53권28책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梅山集』 224책(이하 국중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중 국중본은 1852년7월 홍직필이 사망한 이후 그의 문인과 친지가 함께 문집을 만들기 위한 13년간의 편찬 과정이 그대로 남겨진 자료이기에 간본 『梅山集』과 비

교 시 더욱 풍부한 작품 수와 刪節되지 않은 원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 말 낙론의 도통을 계승한 매산 홍직필이라는 인물 혹은 당대 지식인들의 가치관, 사회상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간본과 함께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중본에 대한 연구는 해체 수준이거나 홍직필의 학문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중본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는 국중본이 『梅山集』 간본을 만들기 위한 교정고본 합집임을 언급한 이은주와 이은주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신영주의 연구²⁾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책에 대한 형태 서지적 특징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고³⁾ 제175~211책에 수록된 碑誌類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였으며 홍직필의 원고가 아닌 다른 자료의 존재는 인지하였지만 전체 목록, 규모, 특징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즉, 현재까지 국중본 전체 책의 형태 서지적 특징, 수록 작품의 정확한 규모와 그 중 홍직필의 원고가 아닌 다른 자료의 목록과 성격에 대하여 밝힌 연구는 아직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중본 원본 전체와 디지털 이미지를 면대면 대조를 진행하여 디지털 이미지의 오류⁴⁾

1) 박윤원(朴胤源): 1734~1799. 자 永叔, 호 近齋, 시호 文獻, 본관 潘南. 조선 영조~정조 때 학자. 김창협(金昌協)·이재(李緯)·김원행(金元行)의 학통을 계승하여 홍직필에게 전수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禮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 『근재집(近齋集)』·『근재예설(近齋禮說)』이 있다.

2) 이은주, 筆寫本 梅山集의 傳記資料的 價値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 석사학위논문, 2015. 신영주, 梅山 洪直弼의 儒道 존숭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한문고전연구 30권, 2015.

3) 기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제공된 '不分卷224冊:30.8×21.7cm'을 기재하는데 그쳤다.

4) 국중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 전체의 디지털 이미지(이하 이미지)를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이미지 전체를 원본224책과 1:1 대조 결과, 이미지 중 일부에서 오류(朱墨으로 작성된 서목명과 교정부호 등 이미지에서는 모두 삭제, 150책과 212책 절반의 원본 이미지 중복, 별지로 교정문이 작성되어 본문에 부착된 상황에서 별지를 누락하고 본문만 촬영한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 서미와

를 체크한 다음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국중본 전책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작성한 목록을 기반으로 국중본에 수록된 타인 저작을 선별하였다. 선별한 타인 저작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본을 규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중본과 간본 『梅山集』 간 관계 규명, 국중본 작품 분석 및 타 기관 소장 필사본 『梅山集』 이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홍직필의 학문적 생애와 『梅山集』

홍직필(洪直弼)은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백응(伯應), 호는 매산(梅山), 시호는 문경(文敬)으로, 1776년6월 홍이간(洪履簡)과 박양흠(朴亮欽)의 딸 사이에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⁵⁾ 홍직필은 17세 되던 해인 1792년에 김창협-이재-김원행으로 이어지는 낙론의 정맥에 위치한 인물이자 대명리론자인 박윤원(朴胤源)을 만나 문하가 되었는데 이때 박윤원은 홍직필을 만난 후 ‘吾道を 맡길만하다(吾道有托).’며 칭찬하였다. 이후 홍직필은 박윤원이 1799년 사망하기 전까지 매년 그를 찾아가 학문을 배웠다.

홍직필은 1801년 아버지의 명으로 사마시에 응시, 초시에 합격하나 회시에는 실패하면서 과거보다는 학문에 오로지 전념하게 되었다. 그러한 그에게 박윤원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기호 낙론을 대표하는 산림학자 오희상(吳熙常)⁶⁾이 있었다. 오희상이 홍직필보다 13세 연상이었기 때문에 홍직필은 오희상을 스승으로써 대접하였지만 두 사람은 학문적 동지로서 평생을 교류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19세기에 서울 지역의 노론 학계를 이끈 두 사람 아래 많은 문인들이 모여 각기 학파를 형성하였고 그 후 이들 학파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⁷⁾ 또한 홍직필은 오희상 뿐 아니라 당대 주요 선배 학자들과 교유 관계를 맺었으며 말년에는 湖洛을 가리지 않고 많은 성리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처럼 홍직필은 평생 관직을 거부하고 처사로 은거하며 학문과 후학 양성에 몰두하면서 많은 양의 글을 저술하였고 생전에 이를 100여책으로 정리하여 남겼다. 그리고 1852년 7월 홍직필이 사망한 후 그의 장남 홍일순(弘一純)⁸⁾과 문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문집 편찬을 시작하였다.⁹⁾

홍일순과 문인들은 1853년부터 남겨진 가장

서각의 교정주 누락, 원본의 촬영 누락과 중복, 이미지의 순서 뒤바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오류를 모두 수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국중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가 다른 경우는 모두 원본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원문의 張數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미지 하단에 기재한 張數를 준용한 것이다.

5) 원래 홍직필의 초명은 긍필(競弼), 자는 백림(伯臨)이었으나 17세 가을에 스승 박윤원을 만난 후 스승으로부터 直弼과 伯應이라는 휘와 자를 받은 뒤 고치게 되었다(『梅山集』 卷53 「年譜」, 17歲條 “...先生初諱競弼字伯臨, 近齋先生爲改今諱與字”).

6) 오희상(吳熙常): 1763~1833. 자는 士敬, 호는 老洲, 시호는 文元, 본관은 海州다. 아버지는 대재학 오재순(吳載純)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이천보(李天輔)의 딸이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李滉과 李珥의 양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주리설을 옹호하였다. 저서로는 『讀書隨記』·『老洲集』 등이 있다.

7)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42, 2008.7.

초본 100책을 脫草하였고, 脫草된 원고는 1857년4월 노량진 근처의 화장산방(華藏山房)에서 1차로 교감¹⁰⁾한 다음 1858년2~3월에 다시 문인 조병덕의 거처인 충청도 남포(藍浦)에서 2차 교감을 하였다.¹¹⁾ 이후 계속적인 교정 끝에 소취면이 거쳐하는 익산에서 1865년4월부터 간인이 시작되어 1866년6월에 목활자본으로 『梅山集』 53권28책(목록1책 포함)의 刊印이 완료되었다. 『梅山集』은 1866년 初刊 이후 다시 重刊되지 않았기에 현재 국내외에 전해지고 있는 간본 『梅山集』 28질¹²⁾은 모두 초간본이며, 국내 소장본은 23질, 국외에는 러시아 1질, 미국 1질, 일본 3질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집이 나오기까지 원고는 교감, 산삭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교정본이 나오게 되었고 이 교정본의 묶음이 바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梅山集』 224책이다. 필사본 『梅山集』은 국중본 이외에도 현재 서울대규장각 소장 『梅山續集』 5책(奎5575)과 『梅山先生書贈編』 2책(奎6942), 경기대도서관 소장 『梅山先生遺集抄』 1책(K102854), 경상대도서관 소장 『天德山人稿』 2책¹³⁾(古(稀)D3B홍79ㄷ), 국회도서관 소장 『梅山集』 1책(古811. 081ㄷ257ㄱ), 부산대도서관 소장 『梅山先生文集』 1책(OAC4-2 656), 충남대도서관 소장 『梅山遺訓』 1책(集.別集類-

- 8) 홍일순(弘一純): 1804~1856. 자는 憲文, 호는 鰲谷이다. 유고로 『鰲谷集』(필사본 8卷4冊,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46-가249)이 있다.
- 9) 『鼓山集』 『梅山洪先生行狀』 “...先生曰.儒者之文.辭達爲貴.彼役於文者.伎倆精而心術壞.可戒而不可法者也.詩亦雅健冲淡.不屑雕琢.人皆謂不易及.有文集百餘卷.縣令君刪定未畢而沒.門人又加節略.爲二十七卷.印行于世...” ‘(가장초본이 되는) 문집 100여 권이 있는데 현령군(홍일순)이 산정하다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문인들이 다시 절략(節略)을 가하여 27권을 만들어 세상에 간행하였다.’ 실제로 『梅山集』 간본은 53권27책(목록1책 포함, 53권28책)으로 행장에서 말한 二十七卷은 二十七冊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百餘卷 역시 百餘冊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10) 『臨齋日記』 『丁巳○四月六日』 “晴.往華藏寺.同門諸賢.曾以先師遺集校刪事約會矣.三溪肅齋趙公丈.慶州韓處士(運聖).益山蘇純汝(輝冕).成川尹進士(錫僖).光州朴君養(源休).龍岡金正洙.淸州李鎮玉.靈岩李休.藍浦趙鎮鶴八九員會.穩話至日晚.余以即觀事入泮.山隔族叔友若(廷烈)氏●●●●●一行.已來到矣.” 『丁巳○四月十六日』 “晴.往華藏寺.始檢存刪之役.是夜.講論近思錄...” 『丁巳○四月十七日』 “晴.晝則校閱遺集.夜則講難經禮.此事眞吾生不易得好事.而回首蘆蕩.亦多感故之懷.”
- 11) 『立軒文集』 卷9 『與徐景襄丁巳八月』 “...校勘未精.來教誠然.諸丈亦皆慮及于此.以團聚三溪重校淨寫之意.證期明春.座下亦預入商量也.” 『肅齋集』 卷11 『答徐景襄 贊奎』 “..... 靑壇[한운성]新陽[임헌회] 及數處同門諸賢.方到鄙所.所事者.先師文稿讎校也.恨不致座下而共其勞...” 홍직필의 고제인 한운성(韓運聖)의 첫 번째 편지로 1차만으로 부족한 교감 문제로 인하여 재교 논의가 1857년8월부터 있었으며, 두 번째 조병덕(趙秉憲)이 서찬규에게 남포에서 재교 작업을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내용의 편지와 그에 대한 서찬규의 답장이 1858년3월10일(『臨齋集』 卷2 『上肅齋趙公戊午三月旬日』)에 있었던 것을 통하여 2~3월에 재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12) 계명대 2질((고)811.081-홍직필ㄱ, (고)811.081 홍직필매-목), 고려대 3질(대학원 D1-A55, 만송 D1-A55, 육당 D1-A79), 국립중앙도서관 1질(BA3648-93-56) 남평문씨 인수문고 1질(인-792), 단국대 1질(고810.819-홍744ㄱ), 동국대 1질(D810.819-홍79:零本), 서울대 규장각3질(奎古 435, 奎 4826, 古 3428-322), 성균관대 준경각 1질(D03B-0327), 영남대 1질(古도810.819-홍직필), 용인대 1질(고D3-437), 전남대 1질(4B1-매51ㄷ), 춘호재 1질(문집-012:缺本), 충남대 1질(集.別集類-539), 한중연 장서각 4질(D3B 352, D3B 352A, D3B 352B, K4-5980), 한양대 1질(811.081-홍782ㄱ),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1질(D55.(E592)), 미국 하버드대 연칭도서관 1질(TK5568.2/3841), 日本 東洋文庫2질(VII-4-173: 金學性印 1질, 在山樓蒐書之一印 1질), 日本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1질(韓4-22)
- 13) 天德山人은 홍직필이 묘문 등을 작성하고 본문 마지막에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한 호칭이었다.

韓國2286)과 『梅山雜錄』 1책(集.別集類-韓國 2266)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상으로 현재 국내 전해지고 있는 모든 필사본 異本들 중 압도적인 규모와 작품 수, 풍부한 교정 관련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은 단연 국중본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에 국중본과 異本 간 계통관계를 밝힐 연구가 요구된다.

3. 서지적 특징¹⁴⁾ 및 작품의 규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국중본의 형태서지사항은 ‘不分卷224冊: 30.8×21.7cm’

처럼 매우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며 이것만 보게 되면 224책 전체가 30.8×21.7cm 내외의 크기를 지닌 책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국중본 책의 크기는 20.2×12.8cm(141책)부터 37.4×23.7cm(212책)까지 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224책 중 91.5%에 해당하는 205책의 표지가 改裝되어 있는 등 형태 서지적으로 특기할만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책의 외형에서 나타나는 형태 서지적 정보는 책에 내재된 특징,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기에 우선 국중본의 형태 서지적 특징을 짚어본 후 수록 작품의 규모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1〉 국중본 표지

14) 국중본 224책 전체의 서지사항은 [부록] 참조.

15) 제1책은 개장된 이후 책 전체 중 처음에 위치한 특수성 때문인지 훼손과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어 보이나 다시 개장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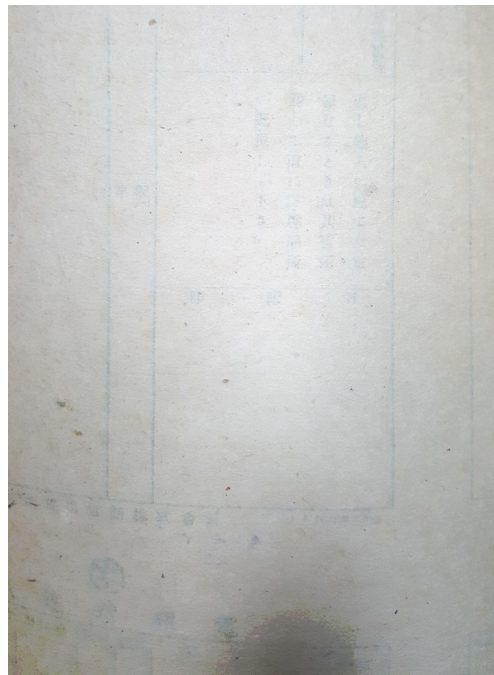
3.1 국중본의 형태 서지적 특징

국중본 표지 좌측에는 서명인 『梅山集』과 冊次가 먹으로 필사되어있다. 서명과 책차의 기재 방식은 전체 동일하나, 제212책은 유일하게 서명이 『梅山先生遺稿』라고 되어 있다.

국중본은 224책 중 19책(제7·8·30·34~38·40~44·160·161·170·212·213·217책)만이 原裝 그대로이며 나머지는 改裝된 상태이다. 原裝의 서너 하단 부분에 기재된 '共二二四'라는 총 책수 정보를 통해서 국중본이 처음 책으로 묶일 때부터 224책이었고 改裝 시에도 原裝의 총책수와 분량을 준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 原裝 표지의 경우 제첩에 서명을 작성한 다음 표지에 부착된 것이나, 수록된 서목명과 서목 작성 시기를 기재한 첨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原裝 표지에서는 전통적인 장정법인 황지홍사에 의한 오침안정법과 근자 모양의 능화문을 볼 수 있다. 原裝 표지 일부에 침수나 충해 흔적 및 마모 등이 보이나 표지의 본래 목적인 본문의 보호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를 통하여 개장된 책의 경우 原裝의 책보다 훼손과 마모 정도가 훨씬 심각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改裝된 205책은 原裝과 마찬가지로 좌측의 서명과 冊次, 우측 書腦 하단의 총 冊數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마분지 같은 재질의 두터운 황색 종이가 205책 전책의 표지로 사용되었고 오침안정법으로 장정되었다. 개장된 205책 전체 서명의 글씨체, 종이 종류, 서너를 꿰맨 실의 종류가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장 작업은 동일 주체에 의하여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개장에 사용된 종이는 제17책 뒤표지 안쪽에 서 출처를 추측할 수 있다. 제17책 뒤표지 안쪽에 얇은 종이가 부착되어 정확하게 판독은 안되지만 히라가나가 인쇄체로 찍혀져 있으며 일부 인쇄된 표의 형태도 확인된다. 인쇄된 언어의 종류와 표의 형태 등으로 추측해보건대 일본 혹은 강점기 중 조선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계지가 『梅山集』의 표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국중본 제17책 뒤표지 안

전체 책 앞표지 안쪽에 찍혀져 있는 타원형의 등록인에는 '朝鮮總督府圖書館/圖書登錄番號'라는 소장기관 정보와 함께, 중앙에 '昭和21.2.20/古2421', 즉 1927년12월20일 날짜의 등록인이 찍혀진 것을 볼 수 있다. 총독부도서관 등록인은 改裝된 책을 포함하여 224책 전 책의

앞표지 안쪽 상단 중앙에 동일한 날짜로 찍혀 있다.

이상을 통하여 국중본이 조선총독부로 受書된 후 改裝된 시기를 추정해보면, 일단 조선총독부에서 1921년10월에 발행된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에는 간본 『梅山集』,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梅山續集』(奎 5575)과 『梅山書贈』(奎 6942)의 소장은 확인되지만 국중본 224책은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조선총독부 도서관은 1925년4월3일에 개관하였고 전책에 등록인이 찍힌 날짜는 1927년12월이니, 조선총독부에서 국중본의 수서, 점검 및 改裝을 한 시기는 대략 1922~1927년 중반 사이로 판단된다. 이어 개장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남겨진 정보로 정확하게 특정하기에 부족하지만 205책 분량의 개장 작업에 필요한 표지용 종이, 실, 기타 물자를 준비할 수 있고 대량의 물자와 고서를 점검하면서 개장 작업이 가능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판단된다.



〈그림 3〉 국중본 표지 안 등록인

다음으로 국중본의 크기를 살펴보면 224책 전책의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국중본의 평균 크기는 32.4×22.3cm이나, 세로 길이가 31.0cm 이하로 평균보다 1.4cm 작은 책이 전체의 16.5%인 37책¹⁶⁾이 있으며, 33.9cm 이상으로 평균보다 1.5cm 큰 책은 전체의 12.5%인 28책¹⁷⁾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책 크기의 편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제141, 142책을 들 수 있다. 제141책부터 146책까지는 書贈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 제141, 142책의 크기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제141책의 크기는 20.2×12.8cm 정도로 수진본이라 할 만큼 작은 데 반해 제142책은 36.6×23.9cm의 크기로 제141책의 거의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편찬 시 전국에서 원고를 교정한 다음 수합되는 과정을 1853년부터 1865년 초반까지 13년간 반복하면서 크기가 제각각인 교정 원고들이 나오게 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후에 작업한 교정 원고를 『梅山集』이라는 서명하에 하나로 묶게 되었고, 그 결과 『梅山集』이라는 동일 서종 입에도 불구하고 제141, 142책과 같은 크기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국중본은 제218책의 행자수부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최소 6행16자~최대 14행20자 사이로 행자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0행20자 내외이다. 또한 필사본이기에 백지에 원고가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224책 중 총 37책¹⁸⁾에

16) 평균보다 1.4cm 작은 책: 2·24·25·30·61·74·82·84~88·90·95·96·98·99·102~104·112·119·120·122·123·128·129·138~141·205·209·216·219·221·224책

17) 평균보다 1.5cm 큰 책: 28·29·31·33·41·44·47·50~54·58·59·63·77~79·111·142·150·164·170·211·212·214·217·223책

18) 烏絲欄이 사용된 책: 제4·8·34~40·42·43·66·71·86·89·90·120·122·138·146·148·159~162·172·178·183·185·194·203·204·207·216·219·222·224책

서 烏絲欄에 글이 작성된 것을 볼 수 있다. 烏絲欄 반엽의 크기는 19.0×14.2cm~28.0×19.9c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22.7×17.0cm 내외이다. 행자수, 오사란 사용 및 반엽의 크기 등이 제각기인 이유는 첫째, 약 13년간의 교정 기간, 둘째, 표제지에 기재된 ‘自永興謄來, 新安義書來¹⁹⁾’에서 알 수 있듯이 문집 편찬에 깊게 참여한 한운성, 조병덕, 임헌희 등 홍직필의 문인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각자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부록] 표에 기재된 張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원본 이미지의 쪽수를 의미하며²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국증본의 총 원고 장수는 3만 1천장 가량이다. 각 책의 장수는 편차가 심한 편(제203책12쪽-제16책372쪽)이고 단일 종의 문체에서도 쪽수에 차이가 나는데(書: 제83책46쪽-제16책372쪽), 이는 처음 교정 원고를 책으로 묶는 작업을 할 때 1책 당 분량의 안배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수록 작품의 체제

본 절에서는 수록 작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작품 수와 문체별 작품 수를 중심으로 규명하며, 문체별 중복 작품 수와 중복률, 연도별 작품 수 등은 추후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증본 224책에 수록된 작품의 편수를 정리한 표는 [부록]의 표와 같다. [부록]의 표에 조사된 바와 같이 국증본은 일반적인 문집의 구성과 비슷하게 詩가 처음에 나오고 이어 편지[書], 묘도문자 등이 수록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문체별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간동안 산출된 교정 원고를 최초 교정본부터 차수별로 시간 순대로 묶은 것이 아니라 일단 교정 원고를 수합하고 이를 문체별로 분류한 다음 224책으로 묶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증본에 수록된 전체 작품 수는 운문[詩賦類]은 3,017題4,454首와 산문[序跋類·奏議類·詔令類·書說類·傳狀類·碑誌類·雜記類·箴銘類·頌讚類·哀祭類²¹⁾]은 10,35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문체의 작품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詩는 총 3,017題4,454首(간본 514題707首)가 국증본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1~12책에 99%이상인 2,991題4,389首, 나머지 26題65首는 제115·128·139·140·163·212·213·215~217책에 분산 수록되었으며, 賦는 수록된 작품이 없다(간본 3題3首). 詩의 題數만을 가지고 국증본과 간본을 비교하면 국증본에 수록된 시의 작품 수가 5.8배나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증본의 시는 2~3차례, 많은 경우 최대 7차례 중복되는 경우²²⁾가 있기에 이 비교

19) 自永興謄來: 216책 표제지, 新安義書來: 36책 표제지

20) 단, 제150책과 212책의 사례와 같이 원본 이미지 절반이 중복되어 제공되는 오류나, 누락된 원본 이미지가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책의 페이지 수를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1)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淸 姚鼐『古文辭類纂』의 13분류법(논변류(論辨類)/서발류(序跋類)/주의류(奏議類)/조령류(詔令類)/서설류(書說類)/증서류(贈序類)/전장류(傳狀類)/비지류(碑誌類)/잡기류(雜記類)/잠명류(箴銘類)/송찬류(頌讚類)/애제류(哀祭類)/사부류(辭賦類))를 준용하였다. 또한 요내의 분류법은 산문을 대상으로 한 분류법이기에 운문의 분류를 위하여 시부류(詩賦類)를 추가하였다.

22) 간본『梅山集』卷3『送韓文五權敬叔安善膺還嶺中丙午冷郎』- 국증본 제5·6·9·11·12책『送韓文五權敬叔安

결과만을 가지고 문집 편찬 시 얼마의 글이 삭제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하나의 문집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편집과 교정 작업이 뒤따랐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근거자료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간본에 수록된 賦가 국중본에 없으며 다수의 詩²³⁾ 역시 간본에만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국중본이 『梅山集』의 모든 교정 원고를 모은 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다.

疏와 啓는 총52편(간본 31편) 중 제13~15책에 51편, 제217책에 疏 1편이 수록되었다. 홍직필의 다른 저작과 비교해보면 疏와 啓의 저작은 극히 적은 편이다. 이는 홍직필이 하사되는 관직을 평생 거부하고 處士로 은거하면서 학문과 후학 양성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書는 8,291편(간본 1,017편) 중 제16~140책에 98.7%인 8,181편, 제146·148·178·185·212~216·221책에 110편이 수록되었다. 편지[書] 역시 詩의 경우와 비슷하게 간본 대비 국중본의 편수가 8.3배로 월등히 많으며 동일한 편지의 중복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편지 역시 중복 제외 시 작품 수와 간본 간의 엄밀한 비교가 필요하며 중복된 경우 교정 사례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書贈은 257편(간본 0편) 중 제139~146책에 247편, 제148·212·214·216·217책에 10편

이 수록되어 있다. 257편 중 단 1편도 간본에 수록되지 못한 서증은 편찬 작업 마지막까지 수록 여부와 관련하여 문하 간의 논박이 있었던 글이다. 서증의 수록 여부를 둘러싼 논박은 문집 편찬 중 글의 편집과 취사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편찬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한운성은 스승이 남긴 서증의 고유함을 이유로 들어서 割附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서증의 글 몇 편은 인쇄 시에는 몇 십 판 정도만 추가될 뿐이니 작은 노력 기울이기를 주저하여 대사를 그르칠 수 있는가²⁴⁾라는 논지로 서증의 수록을 반대하는 소회면의 주장에 반박하는 편지를 조병덕에게 보낼 정도로 수록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1863년9월 한운성이 사망한 후 『梅山集』은 모든 서증이 삭제된 채 편찬 간인되게 되었다.

묘도문자를 포함한 나머지 28종의 문체는 147책 이후 수록되었으며 그 수록 순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序跋類 → 雜記類 → 哀祭類 → 碑誌類 → 傳狀類 → 기타 잡록 순으로 되어있다. 序跋類가 수록된 책은 제148·149·151~159·164~166·212책, 雜記類는 제160~163·175·212·216책, 哀祭類는 제148·149·167~174·195·197·205·212·213·217책, 碑誌類는 제75·140·175~197·212·214·216·217책, 傳狀類는 제149·167·195·198~204·206~208·212책, 그 외 나머지 箴銘類, 頌讚類, 雜著 등은 제32·147·149·150·167·

善膺還嶺中 丙午冷節日」. 국중본 12책에는 해당 시가 3차례(1, 15, 64쪽) 중복 수록되었다.

23) 간본 『梅山集』 卷1 「極寒 丁未」, 「敬受內賜錦囊子」, 「庚戌年」, 「詠善竹橋」, 「有感」, 「和李在邦承達所贈韻 辛亥」, 「夜坐 壬子」 포함 78題110首는 간본에만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24) 『立軒文集』 卷6 「與肅齋趙丈 壬戌八月」 “...且書贈之名.前輩文集所無.而特出吾先師誘進後學底滿腔苦血.則全沒名目.恐甚未安.純汝之必以各欲添入.不勝其多爲言者.殆近於因噎廢食.而在運聖則以所贈運聖者.偶入新陽編摩.故未及固爭於會勘之日.此亦內不足而有所避嫌也.不覺追愧.伏願說與純汝.使之因其名目.添入幾段.則雖或曰割附已了.難於變動.此不過一二篇幾十板.則豈可計此小勞而致有後議乎....”

205·209~211·218~224책에 분산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제147책부터 마지막까지는 문체별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작품이 수록되지는 않았으며 특히 제212책 이후로는 碑誌類나 哀祭類와 詩, 書, 書贈이 한 책에 혼재되어 수록된 경우가 많이 보인다.

제147~224책에 수록된 문체별 작품 수와 그에 대응하는 간본의 작품 수는 <표 1>과 같

다. 국중본 제147~224책 수록 墓文 및 기타 작품 편수는 중복을 포함하여 총 1,751편(간본 344편)이다. 1,751편이라는 수치에는 147~224책의 수록 글 중 앞서 이미 작품 수로 계산된 詩, 書, 書贈, 疏를 제외한 결과이다. 또한 제1~146책 중 해당 문체에 속하는 글(32책 雜著 4편, 75책 墓碣銘 1편, 140책 墓誌銘 1편) 역시 여기에 포함시켰다.

<표 1> 국중본 수록 墓文 및 기타 작품 편수

연번	분류	문체	간본 작품편수	필사본총계(중복포함)
1	序跋類	序	21	252
2	序跋類	題跋	24	146
3	哀祭類	告祝	15	93
4	哀祭類	哀辭	3	20
5	哀祭類	祭文	28	185
6	哀祭類	致祭文	-	1
7	哀祭類	祝文	-	8
8	哀祭類	祝辭	1	5
9	碑誌類	墓碣銘	40	194
10	碑誌類	墓碑銘	-	3
11	碑誌類	墓誌銘	86	168
12	碑誌類	墓表	2	14
13	碑誌類	碑	7	15
14	碑誌類	神道碑	19	38
15	傳狀類	遺事	3	8
16	傳狀類	狀	-	21
17	傳狀類	傳	15	88
18	傳狀類	行狀	33	72
19	傳狀類	謚狀	2	6
20	奏議類	箋	1	48
21	雜記類	記	22	113
22	箴銘類	箴	1	2
23	箴銘類	銘	1	12
24	頌讚類	贊	8	23
25	기타	說	1	5
26	기타	雜識	1	6
27	기타	雜著	8	199
28	기타	婚書	2	6
총계			344	1,751

분류별 작품 수는 碑誌類 432편, 序跋類 398편, 哀祭類 312편, 기타 216편, 傳狀類 195편 순으로 많았는데, 타인에게 부탁받아서 짓게 되는 비지류, 서발류, 애제류, 전장류가 제147~224책에 수록된 1,751편 중 76.6%(1,342편)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일 문체로는 序 252편, 墓碣銘 194편, 雜著 199편, 祭文 185편, 墓誌銘 168편, 題跋 146편, 記 113편, 告祝 93편, 傳 88편, 行狀 72편순으로 작품 수가 많았다. 앞서 詩書와 마찬가지로 국증본에 수록된 묘문 등 부록문자의 작품 수가 간본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많으며 중복되는 글 역시 다수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국증본에 수록된 문체는 詩·疏·啓·書·書贈·序·題跋·告祝·哀辭·祭文·致祭文·祝文·祝辭·墓碣銘·墓碑銘·墓誌銘·墓表·碑·神道碑·遺事·狀·傳·行狀·諡狀·箋·記·箴·銘·贊·辨·說·雜識·雜著·婚書 총 34종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국증본에만 수록된 문체는 書贈·墓碑銘·祝文·致祭文·狀, 간본에만 수록된 문체는 賦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국증본에는 수록되었으나 간본에 없는 글이나 문체의 사례는 저자의 遺稿가 문집의 간본으로 어떻게 편찬되어 가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앞서 언급했던 서증의 수록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같은 치열한 존삭 논의가 현재 간본에 없는 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며, 결국에는 산삭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간본에는 수록되었으나 국증본에 없는 작품과 문체 역시 존재하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이것은 국증본이 편찬 과정 중 생산된 모든 교정 원고를 모은 합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간본에만 수록된 글의 존재를 통하여 교정고본들의 모음인 국증본에 실제로 누락된 교정 원고가 존재한다는 점과 최종 고본인 정고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⁵⁾

4. 타인 저작의 규모 및 특징

국증본에 수록된 전체 작품 수는 운문 3,017題, 4,454首와 산문 10,351편이나, 조사 과정에서 전체 글 중 홍직필의 저작이 아닌 작품이 일부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홍직필이 저술하지 않은 글이 수록된 책은 제111·147·171·205·218~220·222~224책이며, 총 260편의 글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집의 교정원고를 묶어놓은 필사본이나 완성된 간본에 다른 저자의 글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²⁶⁾는 간혹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는 저자의 글로 착각하고 수록된 경우이고, 국증본과 같은 교정원고 합집에 10책 분량의 타인 저작이 수록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산 교정원고와 함께 수록된 타인 저작 자료의 전반적인 구성 및 내용 등을 살펴본 후 해당 글들이 교정 원고와 함께 묶이게 된 연유를 추적해

25) 『梅山集』 정고본 혹은 별도의 필사본이 존재하는지 추적하였다. 결과, 2016년 초반 전주지역의 한 고서점에서 공개한 또다른 필사본 『梅山集』의 본문 사진 몇 장에서 간본에는 수록되어있지만 국증본에 누락된 詩 몇 題가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필사본은 현재는 개인 소장 중이며, 이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6) 권경열, 문집 번역시 산견되는 저자 중복 사례 및 저자 비정, 한국고전번역학회, 고전번역연구8집, 2017.12.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 저작 260편을 제외한 국증본의 총 작품수와 문체별 작품 수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제111책은 황종희(黃宗羲),²⁷⁾ 왕무형(王懋竑),²⁸⁾ 나유고(羅有高)²⁹⁾ 외 20여명의 청대 학자들이 작성한 성리학 및 서학 등에 대한 글 중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편집한 책이다. 각 글들은 『皇朝經世文編』,³⁰⁾ 『黃梨洲文集』³¹⁾ 등의 책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전의 홍직필이 청대 학자들의 글 중 학문 수양 및 서학에 대한 경계 등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일부 선별하여 엮은 책으로 보인다.

〈표 2〉 국증본 제111책 목록과 저자명

연번	제111책 수록 서목명	저자
1	答楊邁公書	羅有高
2	論泥古之弊	王鳴盛
3	與陳扶雅書	汪家禧
4	家禮非朱子書考	王懋竑
5	祠堂考誤四則	王懋竑
6	冠禮考誤五則	王懋竑
7	昏禮考誤五則	王懋竑
8	書宋名臣言行錄	
9	再書宋名臣言行錄	
10	與友人論學書	
11	正學論一	程晉芳

연번	제111책 수록 서목명	저자
12	正學論二	程晉芳
13	正學論三	程晉芳
14	贈錢獻之序	姚鼐
15	安慶府重修儒學記代	姚鼐
16	答顧寧人書	張爾岐
17	與汪容甫書	王昶
18	娛親雅言序	殷玉裁
19	朱子小學跋	殷玉裁
20	記牧書目錄後	張海珊
21	答衍善問絳學書	載祖啓
22	文士詆先儒論	閻循觀
23	遷葬論揚暉吉	揚暉吉
24	族葬考	徐乾學
25	讀葬書問對	黃宗羲
26	喪葬解惑	蔡世遠
27	宅經葬經先後論	全祖望
28	毛稼軒地理書序	錢大所
29	地理考原跋	程晉芳
30	虎口餘生錄書後	梅文鼎
31	天主教	趙翼
32	改天主堂爲天后宮碑記	李衡
33	天主教論	邱嘉穗
34	西學 四庫全書提要	
35	讀通典識宮	沈大成

제147책에는 김종후(金鍾厚)³²⁾와 김양행(金亮行)³³⁾의 『성심록(醒心錄)』이 실려 있다. 두 편자 중 김양행은 김창흡(金昌翕)의 영향을 받아 낙론[人物性同論]을 지지하는 인물로, 이재(李紱)의 문인이자 낙론의 정맥을 이은 김원

27) 황종희(黃宗羲): 1610~1695. 浙江 출신으로, 자는 太沖, 호는 梨洲, 명청 교체기의 사상가로, 청나라 학문에 큰 영향을 남겼다. 저서로 명대 儒學史인 『明儒學案』, 전제군주제를 비판하는 『明夷待訪錄』 등이 있다.

28) 왕무형(王懋竑): 1668~1741. 청나라 江蘇 출신으로, 자는 子中, 호는 白田, 주희의 저술을 정밀히 고증하고 연구하여 『朱子論學切要語』를 저술했고, 그 밖의 『讀經記疑』, 『讀史記疑』 등이 있다.

29) 나유고(羅有高): 1735~1779. 청나라 江西 출신으로, 자는 臺山, 理學과 經義, 文字 등 다방면에 정통했고, 佛經에도 조예가 깊었다. 문집으로 『尊聞居士集』이 있다.

30) 국증본 111책 1번째 羅有高的 「答楊邁公書」와 『皇朝經世文編』 卷二 學術二 儒行 중 「答楊邁公書」, 111책 2번째 王鳴盛的 「論泥古之弊」와 『皇朝經世文編』 卷四 중 「論泥古之弊」

31) 국증본 111책 25번째 黃宗羲의 「讀葬書問對」 - 『黃梨洲文集』 卷九 중 「讀葬書問對」.

32) 김종후(金鍾厚): 1721~1780. 자는 伯高, 호는 本庵·眞齋, 본관은 淸風이다. 초반에는 낙론, 후반에는 호론에 관심을 가지는 행보를 보였다. 영정조대의 정치적 행적 때문에 후대의 평가가 나뉜다. 문집으로 『本庵集』이 있다.

행(金元行)의 從弟이기도 하다.

김중후와 김양행이 국내외 명현들의 언행을 선별한 『醒心錄』은 上·中·下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현재 간본 없이 필사본만 전해지고 있으며, 필사본은 1747년본³⁴⁾과 1765년본,³⁵⁾ 그리고 1765년본을 저본으로 한 1868년본³⁶⁾과 1918년본³⁷⁾ 등이 확인되고 있다. 『醒心錄』은 1744년 김중후와 김양행이 함께 작업을 시작하여 1747년에 마무리한 책을 1765년에 김중후 단독으로 재편집 교정한 이력을 지녔기에,³⁸⁾ 1747년본과 1765년본 목록을 대조하면 다음 표와 같이 본문 구성상에 적지 않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중본 147책과 단국대학교 소장 1747년본 본문의 내용을 대조하였을 때 등사 중 누락으로 보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목록, 上18

편·中49편·下34편의 본문, 『醒心錄解』³⁹⁾의 구성 모두 동일하였으며, 1747년본 下 22번째 『李士亭』 편이 목록에서는 누락되었지만 본문에는 기록되어있는 현상이 국중본 147책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하지만 국중본과 하버드대학교 소장 1765년본을 비교하면, 1765년본은 『醒心錄凡例』와 『醒心錄跋』이 추가되었으며 『醒心錄解』가 삭제되었다. 본문 역시 국중본과 비교 시 上장은 20편으로 2편이 추가되었고 中장은 9편이 삭제된 40편, 下장은 2편이 추가된 32편으로, 上·中·下 모두 내용의 가감이 있지만 특히 中장에서 宋·元·明代의 학자 관련 내용 9편이 삭제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따라서 1747년본과 제147책은 본문 구성과 내용, 부록(『醒心錄解』)과 그 내용

〈표 3〉 국중본 제147책의 『醒心錄』과 1747년, 1765년 『醒心錄』 간 목록 비교

구분	국중본 147책	『醒心錄』 1747년본(단국대 소장본)	『醒心錄』 1765년본(하버드대 소장본)
上	18편	18편	20편: 추가 冉子·子有(2편)
中	49편	49편	40편: 삭제 何文定·王魯齋·眞西山·金仁山·許白雲·薛敬軒·胡敬齋·蔡虛齋·羅整菴(9편)
下	34편	34편	32편: 삭제 趙月川·鄭守夢(2편)
기타	『醒心錄解』	『醒心錄解』	『醒心錄凡例』, 『醒心錄跋』

- 33) 김양행(金亮行): 1715~1779. 자는 子靜, 호는 止菴·驪湖, 시호는 文簡, 본관은 安東이다. 문집으로 『止菴集』이 있다.
- 34) 연세대학교(고서(I) 181.15 김중후 성-필), 단국대학교(고 921.5 김869사), 『醒心錄』 『醒心錄解』 “...崇禎甲申後一百四年丁卯歲 清風金鍾厚書”에 의거하여 1747년본이라 지칭하였다.
- 35)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57-2, 古朝00-5), 국민대학교(991-김01), 단국대학교(고921.5 김879사), 성균관대학교(C02-0195), 미국 하버드대학교(TK1422.7 -8187), 『醒心錄』 『醒心錄跋』 “...崇禎三乙酉季冬 清風金鍾厚書.”에 의거 1765년본이라 지칭하였다.
- 36) 연세대학교(177 김중후 성-필).
- 37) 동국대학교(D921.5-김75사).
- 38) 『醒心錄』 『醒心錄跋』 “此 余於甲子年間 與友人金子靜 抄輯者也.今閱之便已爲二十餘年事使人居然有壯衰之感矣.自顧昏惰無一得力於此而將復興後生少輩觀之寧不慨哉.顧其中頗有裁削未定者遂加証正而卒成之尙輩自警於將來云爾.崇禎三乙酉季冬清風金鍾厚書.”
- 39) 김중후가 성심록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1747년에 문답식으로 작성한 5쪽 짜리 글이다. 국중본에는 책 처음에, 단국대 소장 1747년본에는 책 마지막에 수록되어있다.

이 모두 동일하기에 제147책 『醒心錄』의 저본으로 사용된 책은 바로 1747년본임을 알 수 있다. 즉, 제147책의 『醒心錄』은 김종후가 호론에 관심을 가지던 시절인 1765년에 단독으로 편집한 분이 아닌, 김종후가 낙론으로써 정체성이 확실하던 시절 김양행과 함께 작업한 1747년본을 수록한 것이다.

제111책과 제147책은 내용과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두 책 모두 기존의 글을 선별 채록한 책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梅山集』 편찬 당시 홍직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책들이다. 각 책은 홍직필이 고민하던 주요 사안이나 낙론으로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주요 자료로 문집 편찬 중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던 편지를 편집할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참고자료로써 사용되던 두 자료는 교정원고가 책으로

묶이면서 함께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제171책과 제220책은 1852년 7월 홍직필 사후 문인과 친지들이 지은 제문으로 이뤄졌는데, 각 책마다 32편의 祭文이 수록되어있다. 본문 일부가 누락되거나 훼손되어서 제문이 지어진 정확한 날짜와 문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글 3편을 제외한 나머지 61편 모두 1852년 7월~10월 사이에 지어졌다. 제171책과 제220책의 제문 중 어떤 글도 국중본 내 중복되는 것은 없으며 또한 간본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간본에는 53권 『附錄』에 수록된 『年譜』와 『年譜跋』 외에 홍직필의 행적과 관련된 묘문이 전혀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1866년 간인이 완료된 후에야 조병덕이 1867년에 묘지명을, 임헌회가 1869년에 행장을 완성한데 기인한다. 이를 통해서 추정해보건대 문집 편찬 당시 홍직필에 대한 행장, 묘지명이 완성되지 않



〈그림 4〉 소장 기관 별 『醒心錄』 권수면

은 상황에서 제문만 수록하는 것을 편찬자들이 원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간본에 제문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205책은 致祭文, 行狀, 墓碣 각 1편씩 총 3편으로 이뤄졌다. 致祭文은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⁴⁰⁾에 관한 것으로 치제문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致祭文'이라는 서목 하단에 '正宗大王己未年'이라는 작성일로 보이는 날짜가 적혀 있다. 정조[正宗] 기미년인 23년(1799)에 한원진과 관련한 주요 사안으로 1799년10월25일에 이의필(李義弼), 이서구(李書九)를 각각 형조, 이조판서로 임명하면서 한원진을 이조판서로 추증⁴¹⁾한 일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제205책의 치제문은 한원진의 이조판서 추증과 관련해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치제문 다음에 위치한 행장 역시 한원진의 것이다. 행장 마지막에 적힌 '崇禎甲申後再甲戌除月友人坡平尹鳳九謹狀'을 통해서 한원진과 함께 권상하 밑에서 수학한 윤봉구(尹鳳九)⁴²⁾가 1754년에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행장은 윤봉구의 문집 『屏溪集』 卷59 「南塘韓公元

震行狀」에도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에 수록된 묘갈문 또한 한원진의 것으로 서목 아래 '門人山水軒權震應撰'이라는 기록을 통해, 그의 문인이자 권상하의 증손자인 권진응(權震應)⁴³⁾이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제205책에 수록된 3편의 글 모두 한원진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원진은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대표적 湖論으로 洛論의 도통을 잇는 홍직필의 교정원고 가운데 그의 치제문과 묘도문자가 발견된 것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한원진과 관련된 글이 국증본에 수록된 이유에 대하여 추측해보면, 홍직필은 생전에 한원진과 치열하게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 논쟁을 벌였던 외암 이간(巍巖 李東)⁴⁴⁾의 신도비문⁴⁵⁾과 축문⁴⁶⁾을 작성하였고, 당시 이간의 주장에 동조하였던 어유봉(魚有鳳)의 묘지문⁴⁷⁾과 박필주(朴弼周)의 행장⁴⁸⁾ 역시 작성하였다. 홍직필이 상기 인물들에 대한 묘문과 행장을 짓기 위해서 혹은 홍직필의 문하가 편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원진의 주장과 그 생애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에, 제205책의 한원진과 관련

40)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자는 德昭, 호는 南唐, 본관은 淸州이다. 이이-송시열-권상하의 학맥을 이었으며, 권상하의 문인 중 대표적인 8명인 江門八學士 중 한 사람이다. 호락논쟁에서 人物性同論을 주장한 李東에 반대하여 人物性異論을 주장하였다.

41) 『正祖實錄』 卷52 正祖23년10月更子 3번째 기사 「以李義弼爲刑曹判書, 李書九爲吏曹參判。故執義韓元震贈吏曹判書。」.

42) 윤봉구(尹鳳九): 1683~1767. 자는 瑞膺, 호는 屏溪·久菴, 본관은 坡平이다. 權尙夏의 문인이며, 人物性異論을 주장한 한원진의 이론을 따랐다.

43) 권진응(權震應): 1711~1775. 자는 亨叔, 호는 山水軒, 본관은 安東. 권상하의 증손자이며, 한원진의 문인이다.

44) 이간(李東): 1677~1727. 자는 公舉, 호는 巍巖, 秋月軒, 시호는 文正, 본관은 禮安이다. 권상하의 문인이며, 강문 팔학사 중 한 사람이다. 人物性同論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45) 국증본 『梅山集』 193, 194책 「贈吏曹判書文正公巍巖李先生神道碑銘并序」 (중복)-간본 『梅山集』 卷34 「贈吏曹判書諡文正公巍巖李先生[東]神道碑銘」.

46) 국증본 『梅山集』 172책 「右巍巖李文貞公東」.

47) 국증본 『梅山集』 186책 「杞園魚先生墓誌銘并序 甲午」-간본 『梅山集』 卷37 「杞園魚先生[有鳳]墓誌銘甲午」.

48) 국증본 『梅山集』 201책 「右贊成諡文敬黎湖朴先生行狀」-간본 『梅山集』 卷48 「左贊成諡文敬黎湖朴先生[弼周]行狀」.

된 글이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추후 교정 원고가 책으로 묶이게 되면서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제218책은 南陽 洪氏 禮史公派를 포함한 25가문의 世系 및 자손록으로 이뤄졌다.

〈표 4〉 국중본 제218책에 수록된 世系

연번	世系	내용
1	本宗直派	南陽洪氏 禮史公派(司直公派)
2	交河盧氏世系	11世 洪溟의 부인 世系
3	開城高氏世系	12世 洪師錫의 初室 世系
4	安東金氏世系	12世 洪師錫의 後室 世系
5	安東權氏世系	13世 洪伯涓의 부인 世系
6	慶州李氏世系	13世 洪季涓의 부인 世系
7	原州元氏世系	14世 洪貴孫의 부인 世系
8	廣州李氏世系	15世 洪以平의 부인 世系
9	晉州柳氏世系	16世 洪德潤의 初室 世系
10	興陽柳氏世系	16世 洪德潤의 後室 世系
11	廣州李氏世系	17世 洪仁憲의 初室 世系
12	白川趙氏先系	17世 洪仁憲의 後室 世系
13	靑州李氏世系	18世 洪達의 부인 世系
14	平山申氏世系	19世 洪汝器의 부인 世系
15	咸陽朴氏先系	20世 洪治允의 부인 世系
16	完山李氏世系	21世 洪啓河의 부인 世系
17	咸平李氏世系	21世 洪啓漢의 初室 世系
18	全州李氏世系	21世 洪啓漢의 後室 世系
19	坡平尹氏世系	22世 洪夢協의 初室 世系
20	晉州姜氏世系	22世 洪夢協의 後室 世系
21	鎭川宋氏世系	23世 洪普源의 初室 世系
22	完山李氏世系	23世 洪普源의 後室 世系
23	羅州丁氏世系	23世 洪普源의 後室 世系
24	延安金氏世系	23世 洪普源의 後室 世系
25	竹山安氏世系	24世 洪養正의 부인 世系
26	宗廟公生存子孫錄	16世 洪德潤(宗廟公)의 자손록

남양 홍씨 당홍계(南陽 洪氏 唐洪系)는 홍은열(洪殷悅)을 中始祖로 삼고 있으며 4세 예사공 홍복(禮史公 洪復)을 派組로 삼으면서 예사공파로 분파되었다. 이후 13세 홍계연(洪季涓)에서 사직공파(司直公派)로 다시 분파되었는데, 이 사직공파는 홍직필이 속한 분파이기도 하다. 제218책 처음 「本宗直派」에 기록된 남양 홍씨의 世系는 사직공파를 중심으로 중시조부터 24세까지 직계의 간소한 인물 약력과 배우자 성씨가 기술되어있다. 이어 교하 노씨(交河 盧氏)를 포함하여 禮史公派 11~24세와 혼인한 24가문의 간략 世系와 16세 종묘공 홍덕윤(宗廟公 洪德潤)의 생존 자손록이 수록되었다. 제218책의 작성자와 관련된 기록이나 단서는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다. 하지만 홍직필의 묘문을 작성하거나 그의 문집을 편찬하기 위하여 제218책과 같은 홍직필 조상의 약력, 배우자 출신과 같은 자료의 필요성이 요구되기에 홍직필 사후 문집 편찬을 위해 문하가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219책은 홍직필에게 올리는 수서(壽序) 6편이 수록되어있다. 수서(壽序)란 개인의 장수를 축원하기 위하여 지어진 글인데 조선에서는 16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한 贈序文의 일종이다.⁴⁹⁾ 1852년 홍직필이 76세가 되던 해 홍직필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유신환(兪莘煥),⁵⁰⁾ 김공현(金兢鉉), 이응진(李應辰),⁵¹⁾ 홍재정(洪

49) 김우정, 「한국 한문학에 있어서 壽序의 전통과 문학적 변주 양상」,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51권, 2013.06.

50) 유신환(兪莘煥): 1801~1859. 자는 景衡, 호는 鳳棲, 본관은 杞溪이다. 홍석주, 오희상 등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윤병정, 서응순, 김윤식 등의 학자를 길러냈다. 조선말 성리학의 대가이면서 율력, 정치, 경제, 군사 등에도 박학하였다.

51) 이응진(李應辰): ?~?. 자는 拱五(국중본의 편지에서 이응진의 자는 拱五, 간본에서는 公五로 되어있다. 『梅山集』 인쇄 후 간본에 오타자가 많다고 토로한 조병덕의 편지로 보건대, 이것 역시 간본의 오자로 생각된다.), 호는 素山, 시호는 文獻, 본관은 全州이다. 부친은 李華冕이다. 유신환의 문인이다. 홍직필과 나눈 편지 8통(중복 제외)이 국중본에 수록되었다. 홍직필의 고제인 한운성의 『立軒集』 발문을 지었다.

在鼎),⁵²⁾ 윤병정(尹秉鼎),⁵³⁾ 서응순(徐應淳)⁵⁴⁾ 6명이 글을 올렸다. 이 중 유신환은 홍석주, 오희상의 문인이었으며 홍직필이 그에게 보냈던 편지가 국증본에 24통⁵⁵⁾(간본에 수록된 것은 3통⁵⁶⁾)이나 전해질 정도로 홍직필과의 교류가 있던 인물이다. 제219책에 수록된 壽序 중 국증본 내 중복으로 수록된 글은 한 편도 없으며, 간본에 수록된 글 역시 없다.

제222~223책은 모두 권수제로 ‘言行類編’이라고 적혀 있고, 수록된 내용 역시 성현의 언행을 주제별로 구분한 다음 초록한 것이다. 권수제 하단에는 ‘延安李忠翼士信 輯. 從叔 時愚魯叟 甫校’라고 적혀 있다. 두 인물은 연안 이씨 소부감판사공파(延安 李氏 小府監判事公派(舊 判少府監公派)) 중 월사공파(月沙公派)의 22世 이충익(李忠翼)⁵⁷⁾과 21世 이시우(李時愚)⁵⁸⁾로, 종숙관계⁵⁹⁾로 만나 함께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시우와 이충익에 관하여 전해지는 정보는 족보, 승정원일기, 일성록, 지인

과 교류했던 편지로 알 수 있는 약간의 행적 정도가 전부이다. 그러하기에 두 사람이 함께 『言行類編』을 편집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이 책이 『梅山集』 교정 원고들 가운데 남겨진 연유에 대해 알려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선 국증본에 수록된 『言行類編』이 별도의 책으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편저자와 홍직필 간 접점을 추적하여 해당 책이 국증본에 수록된 이유를 분석해보려 한다.

두 사람의 편저 중 『言行類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충익에게는 남겨진 저서가 한 책도 없으며, 이시우는 유고인 『석지유고(石芝遺稿)』와 지인과 나눈 편지를 모은 『석지서독(石芝書牘)』이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역시 『言行類編』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전해지는 『言行類編』 중 국증본과 동일본 인지의 여부를 확인해볼만한 책은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저자 미상의 필사본 『言行類編』 1~2책⁶⁰⁾을 들 수 있다. 두 『言行類編』

52) 홍재정(洪在鼎): 1820~?. 자는 公實, 본관은 南陽이다. 조부는 洪秉珪, 부친은 洪友燮이다.

53) 윤병정(尹秉鼎): 1822~1889. 자는 士弘, 호는 巴江, 시호는 孝文, 본관은 南原이다. 부친은 尹泰周이다. 유신환의 문인으로 그의 행장을 지었다.

54) 서응순(徐應淳): 1824~1880. 자는 汝心, 호는 綱堂, 본관은 達成이다. 달성부원군 徐宗悌의 후손이다. 유신환의 문인으로 심기택, 민태호, 김윤식등과 함께 수학하였다.

55) 국증본 『梅山集』 56책 「答俞景衡 甲辰三月十二日」, 「答俞景衡 丁未臘月念一日」, 「答俞景衡 己酉復月既望」, 「與俞景衡 庚戌六月念六日」, 95책 「與俞景衡莘煥○壬寅復月旬一」, 「與俞景衡 癸卯元月」, 「又 癸卯四月少晦」, 「又 癸卯閏月二十二日」, 「又 癸卯十二月二十二日」, 「答 甲辰正月二十六日」, 「與 甲辰九月一日」, 「又 甲辰十二月二十七日」, 「又 乙巳五月十日」, 「又 乙巳十月十七日」, 「答 丙午二月十四日」, 「與 丙午五月二十二日」, 「又 丙午十月二十四日」, 「又 丁未五月十九日」, 「與俞景衡 丁未棗秋三日」, 「答俞景衡 己酉元月念二日」, 「與俞景衡 庚戌棗秋六日」, 「與俞景衡 庚戌陽月少望」, 「與俞景衡 辛亥棗秋念四日」, 「答俞景衡莘煥○壬子蝸夏念四日」.

56) 간본 『梅山集』 卷15 「與俞景衡莘煥○辛丑中庚日」, 「卷15 答俞景衡甲辰三月」, 「卷15 答俞景衡丁未臘月」.

57) 이충익(李忠翼): 1804~1871. 자는 士信, 본관은 延安이다. 通政大夫 同副承旨를 역임하였다.

58) 이시우(李時愚): 1804~1853. 자는 魯叟, 自號는 石芝, 본관은 延安이다. 翰林院을 거쳐 吏曹參議를 역임하였다. 홍석주의 외손이자 유신환의 문인인 韓章錫이 지은 행장(『眉山集』 卷13 「吏曹參議石芝李公行狀」)이 전해지고 있다. 저서로 『石芝遺稿』와 『石芝書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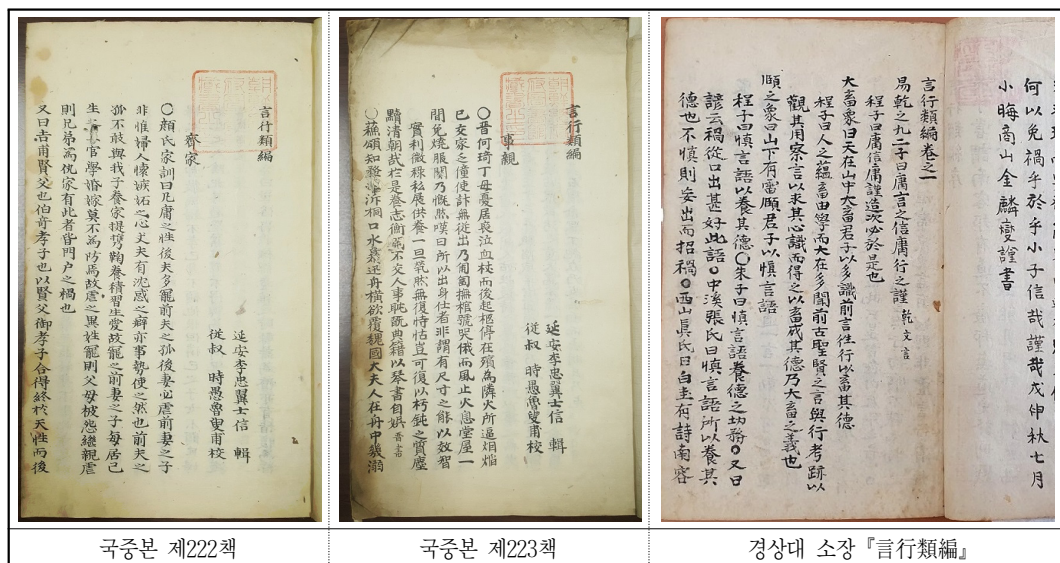
59) 이시우의 부친 李磐秀(1765~1832)와 이충익의 조부 李光秀(1760~1786)는 형제(生父:李述源)이며, 李磐秀는 나중에 李長源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60)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소장. 2卷2冊, 10行字數不定, 29.8×18.5cm, 청구기호:古(단계)C2 연92/92b

을 비교해본 결과 경상대 소장본 序文에 기술된 편찬 배경 및 '戊申林七月小晦常山金麟變謹書'를 통해서 경상대 소장본은 1848년에 단계 김인섭(端溪 金麟變)⁶¹⁾이 편집한 책임을 확인하였다. 두 종의 구성 및 편집 등을 좀 더 살펴보면, 국중본 『言行類編』의 각 책은 편명을 기재한 후 해당되는 주제의 내용을 중국에서 간행된 역사서, 언행록, 잡지 등 다양한 종류의 서적⁶²⁾에서 선별한 다음 이를 白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222책은 '齋家·敦睦·周卹·儉約·厚德·勤學·尊賢·居官·廉潔' 등 총 9편의 주제로 이뤄졌고, 제223책은

'事親·夫婦·兄弟·子孫·朋友' 등 총 5편의 주제로 이뤄졌다. 이와 달리 경상대 『言行類編』은 별도의 편명이나 주제별 분류 없이 주역의 대문과 程朱子의 주석 일부를 선별 기재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었다. 이상을 통해서 두 종의 『言行類編』은 전혀 다른 책이며, 국중본에 수록된 『言行類編』은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책임을 알 수 있다.

제147책에 수록된 김종후의 『醒心錄』과 달리 별도의 현존본이 없는 새로운 책인 『言行類編』이 국중본에 수록된 연유에 대하여 남겨진 기록은 없는데다, 이시우·이충익과 홍직필 간



〈그림 5〉 소장 기관 별 『言行類編』 권수면

- 61) 김인섭(金麟變): 1827~1903, 자는 聖夫, 호는 端溪, 본관은 常山이다. 조선 말기 문신으로, 저서로 『端溪集』, 『端溪日記』, 『言行類編』의 다수가 있다.
- 62) 국중본 『言行類編』의 각 내용 마지막에는 출처가 기재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別傳』과 같이 약칭으로 적혀 있어서 정확한 책의 서명과 저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인된 출처는 다음과 같다. 『唐紀』, 『大學類義』, 『東坡集』, 『東軒筆錄』, 『墨客揮犀』, 『問奇類林』, 『事文類聚』, 『三事邇真』, 『說鈴』, 『世說新語』, 『聖宋掇遺』, 『蘇州志』, 『野客叢書』, 『五倫行實』, 『齊東野語』, 『趙槩聞見錄』, 『知不足齋叢書』, 『津逮秘笈』, 『清波雜誌』, 『楚語』, 『春渚紀聞』, 『避暑錄話』, 『鶴林玉露』, 『韓詩外傳』, 『化書』, 『厚德錄』, 『後漢書』.

교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편저자와 홍직필이 교류했던 인물 간 접점이 있는지를 추적해보았고, 이를 위해서 우선 국증본과 이시우의 『石芝遺稿』, 『石芝書牘』에 남겨진 편지의 인물 중 중복 인물을 찾아본 다음, 편저자와 홍직필 문하 간 교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국증본과 『石芝遺稿』에 수록된 편지 주인 중 중복되는 인물은 신석우(申錫愚)⁶³⁾, 조도순(趙道淳)⁶⁴⁾, 이종우(李鍾愚)⁶⁵⁾가 있으며 국증본과 『石芝遺稿』에 수록된 편지 주인 중 중복 인물은 신석우, 조도순을 들 수 있다. 또한 금계 이봉수(襟溪 李鳳秀)⁶⁶⁾와 홍직필의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이봉수는 『言行類編』을 편집 교정한 이시우, 이충익과 함께 月沙公派에 속하며, 홍직필과 비슷한 연배로 임로, 오희상과 교류를 하였던 인물이다. 홍직필이 이봉수에게 보낸 편지는 국증본에 중복 포함하여 759통(간본에는 109통 수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류 기간은 1799년부터 이봉수가 사망하던 해인 1847년까지 계속되었다. 국증본에 수록된 편지 8,290통 중 9.1%인 759통이 이봉수의 편지일 정도로 두 사람은 깊은 교류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홍직필의 문인들과 두 편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시우와 홍직필의 高弟인 한운성 간

의 교류를 한운성의 『立軒集』에서 일부 엿볼 수 있다.⁶⁷⁾

이시우와 이충익이 학문 면으로 명망 있었는데 기록은 현재 확인되지 않기에 이들이 편집한 책을 홍직필이 학문 수양을 위해 따로 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이시우, 이충익이 홍직필에게 『言行類編』의 序文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보냈고 이봉수, 신석우, 조도순, 이종우와의 인연 등을 생각한 홍직필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홍직필의 병환 혹은 사망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言行類編』은 문집 편찬 과정 중에 참고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교정 원고가 책으로 묶일 당시 함께 섞여 들어가 묶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제224책은 行狀, 行錄 등 9편과 墓碑銘 1편이 수록되어있는데, 10편의 작성자 모두 홍직필이 아닌 행장 주인과 묘주의 후손이나 관계자임을 알 수 있다.

묘문 주인의 관계자 등이 지은 글은 초암 김헌기(初庵 金憲基)가 지은 허무의 행장, 우암의 5대손인 성담 송환기(性潭 宋煥箕)가 작성한 경호 이의조(鏡湖 李宜朝)⁶⁸⁾의 행장, 김이양(金履陽)이 지은 제말(諸沫)의 행장, 심상규(沈象奎)가 지은 제경옥(諸景戔)의 묘비명

63) 신석우(申錫愚): 1805~1865. 자는 聖如, 호는 海藏, 본관은 平山이다.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과 글씨에 이름이 뛰어났다.

64) 조도순(趙道淳): 1804~?. 자는 稚教, 稚有, 본관은 楊州이다.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65) 이종우(李鍾愚): 1801~?. 자는 大汝, 호는 石農, 본관은 延安이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서풍이 독특하여 석농체(石農體)라 불렸었다.

66) 이봉수(李鳳秀): 1778~1847. 자는 子岡, 호는 襟溪, 大隱, 본관은 延安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 李始源이고, 어머니는 金安默의 딸이다. 종조부 李直輔와 任魯, 吳熙常 등에게 수학하였다.

67) 『立軒文集』 卷2 「訪李承旨 時愚 于石芝精舍, 臨別賦一絕以呈」; 卷14 「訪李承旨 時愚 于石芝精舍, 臨別賦一絕以呈」; 卷16 「府尹李公 時愚 頌德碑 代府人作」.

68) 이의조(李宜朝): 1727~1805. 호는 鏡湖, 본관은 연안이다. 그의 저서인 『家禮增解』는 『常變通攷』와 함께 영남에서 널리 통용되었는데 그 중 『家禮增解』는 노론의 예서라고 평가되고 있다.

4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묘문 주인의 친지가 지은 글은 조경온(趙綱溫)⁶⁹⁾과 유인 박씨(孺人朴氏)의 아들인 조정휴(趙鼎休)가 지은 조유헌(趙有憲), 부친[趙綱溫], 모친[朴氏]의 행장·가장 각 3편이 있고, 이정관(李正觀)이 지은 만형[伯氏] 이정리(李正履)의 행장, 제안국(諸安國)이 지은 제홍록(諸弘祿)의 遺狀, 조카 이씨(李氏)가 지은 전주 이씨(全州 李氏)의 행록 6편을 들 수 있다.

제224책에 등장하는 묘주가 국증본 내 다른 글, 특히 홍직필이 지은 묘도문자에 등장하는지를 조사해보면, 상기 표의 내용과 같이 10편 중

8편의 인물(허무, 조유헌, 조경온과 그의 처 유인박씨, 이정리, 제말, 제경옥, 제홍록)이 홍직필이 저술한 碑誌類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부연하자면 홍직필이 저술한 비지류는 총 8명에 대하여 9편이 작성되었고 이 중 4편(조유헌, 이정리, 제경옥, 제홍록)이 간본『梅山集』에 수록되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제224책에 수록된 글은 홍직필에게 조상의 碑誌類를 부탁하기 위하여 각각의 가문에서 작성한 가장 및 행장을 보낸 것이며, 홍직필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인물들 생전의 행적 및 품성을 살핀 후에 글을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 국증본 제224책 수록 서목 및 특이사항 정리

연번	제목	행장 주인/묘주 및 저자 관련 정보	묘주에 대해 매산이 작성한 글
1	崧下許公行狀	초암 김헌기가 지은 許愍의 행장. 『初庵先生全集』 卷13에도 수록	- 국증본:177,180,195책 『主簿許公墓碣銘并序』 (중복) / 183,189책 『主簿許公墓誌銘并序』 (중복)
2	僉知中樞府事鏡湖李公行狀	성담 송환기가 지은 鏡湖 李宜朝의 행장. 『性潭先生集』 卷29에도 수록	-
3	芝山趙先生行狀	芝山 趙有憲의 행장. 본문 마지막 崇禎二十八年乙巳秋七月宗孫鼎休泣血謹狀	- 국증본:178,217책 『芝山趙公墓碣銘并序』 (중복) - 간본:卷37 『芝山趙公[有憲]墓碣銘』
4	星巖趙公家狀	星巖 趙綱溫의 가장. 본문 마지막 崇禎二十四年辛卯春不肖男鼎休泣血謹狀	- 국증본:217책 『星巖趙公墓誌銘并序』
5	孺人朴氏行狀	趙綱溫의 처 孺人 朴氏의 행장. 본문 마지막 崇禎二十九年丙午冬不肖子鼎休泣血謹狀	- 국증본:217책 『孺人朴氏墓誌銘并序』
6	伯氏行狀	醇溪 李正履의 행장. 제목 하단 不肖弟正觀述	- 국증본:184책 『醇溪李公墓誌銘并序』 - 간본:卷43 『醇溪李公[正履]墓誌銘』
7	忠壯諸公行狀	諸沬의 행장. 본문 마지막 輔國崇祿大夫致仕奉朝賀金履陽狀	- 국증본:206,208책 『諸忠壯公傳』 (중복)
8	贈三道統制使諸公墓碑銘	본문 마지막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沈象奎撰	- 국증본:206,207,208책 『贈統制使諸公傳』 (중복) - 간본:卷51 『贈統制使諸公[景彥]傳』
9	族祖副正贈宣武功臣兵曹參判訓鍊都正公遺狀	諸弘祿의 遺狀. 본문 마지막 族孫安國謹狀	- 국증본:183,186책 『副正贈兵曹參判諸公墓誌銘并序』 (중복) - 간본:卷37 『正贈兵曹參判諸公[弘祿]墓誌銘』
10	貞夫人全州李氏行錄(哲宗七月十七日資憲大夫刊)	본문 마지막 癸亥季冬?姪李??? (글씨 훼손)	-

69) 조경온(趙綱溫): 1749~. 호는 星巖. 본관은 稷山으로, 蘿山 趙有善의 아들이자 芝山 趙有憲의 조카이다.

각 가문에서 보낸 행장 등은 문집 편찬 중 비지류를 편집하는데 참고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책들과 마찬가지로 교정 원고가 책으로 묶일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되던 각 가문의 행장 역시 함께 수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국중본 224책 총3,017題4,454首 10,351편의 글 중 홍직필의 저술이 아닌 10책 분량 260편의 저자와 글의 특징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전체 작품 중 260편을 제외한 3,017題4,454首 10,091편을 중심으로 국중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을 보였다.

타인 저작 260편이 제외될 경우 작품 수가 변동되는 문체는 묘문 및 기타 잡저로 작품 수는 기존 1,751편에서 1,491편으로 낮아졌다. 분류별 작품 수는 碑誌類 430편, 序跋類 392편, 哀祭類 247편, 傳狀類 185편, 雜記類 113편순으로 많았고, 단일 문체는 序 246편, 墓碣銘 193편, 墓誌銘 168편, 題跋 146편, 祭文 121편, 記 113편, 告祝 93편, 傳 88편, 行狀 62편순으로 많았으며 致祭文은 0편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세한 문체별 변동 편수는 <표 6>과 같다.

<표 6> 타인 저작 제외 시 墓文, 기타 작품 수

연번	분류	문체	타인저작 포함	타인저작 제외
1	序跋類	序	252	246
2	序跋類	題跋	146	146
3	哀祭類	告祝	93	93
4	哀祭類	哀辭	20	20
5	哀祭類	祭文	185	121
6	哀祭類	致祭文	1	-
7	哀祭類	祝文	8	8
8	哀祭類	祝辭	5	5

연번	분류	문체	타인저작 포함	타인저작 제외
9	碑誌類	墓碣銘	194	193
10	碑誌類	墓碑銘	3	2
11	碑誌類	墓誌銘	168	168
12	碑誌類	墓表	14	14
13	碑誌類	碑	15	15
14	碑誌類	神道碑	38	38
15	傳狀類	遺事	8	8
16	傳狀類	狀	21	21
17	傳狀類	傳	88	88
18	傳狀類	行狀	72	62
19	傳狀類	謚狀	6	6
20	奏議類	箋	48	48
21	雜記類	記	113	113
22	箴銘類	箴	2	2
23	箴銘類	銘	12	12
24	頌讚類	贊	23	23
25	기타	說	5	5
26	기타	雜識	6	6
27	기타	雜著	199	22
28	기타	婚書	6	6
총계			1,751	1,491

5. 결 론

이상으로 국중본 224책의 형태 서지적 특징, 구성과 총 작품 수를 알아본 후, 국중본 내 수록된 홍직필의 원고 외 다른 자료의 규모, 목록, 성격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중본은 1853년부터 1865년 초반까지 『梅山集』의 편찬 과정 중에 발생한 교정 원고의 합집으로 총224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다. 전체 224책 중 91.5%에 해당하는 205책의 표지가 改裝된 상태이며, 개장 시기는 대략 1922~27년 중반 사이로 볼 수 있다.

국중본의 총 작품 수는 3,017題4,454首 10,351

편이며, 홍직필 외 인물의 작품은 10책(제111 · 147 · 171 · 205 · 218~220 · 222~224책) 분량 260편이다. 이 타인 저작은 『梅山集』 편찬 시 참고 자료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국중본 내 수록된 홍직필 외 저자가 작성한 글들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낙론으로써 정체성과 당대 홍직필이 지닌 관심사 등과 관련된 자료(제111, 147책), 홍직필에 대한 祭文 모음(제171, 220책)과 壽序 모음(제219책), 홍직필이 17~8세기 호랑 논쟁이 있었을 당시 낙론의 주요 인물의 묘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글(제205책), 홍직필에게 조상의 묘지명 등을 부탁하기 위하여 조상의 행장, 가장 등을 맡겼던 것이 묶인 경우(제224책)와 같이 문집을 편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글이 교정 원고와 함께 국중본에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글들은 홍직필이라는 인물의 면모 파악과 홍직필이 작성한 편지와 碑誌類의 배경이 되는 글들이 문집 교정기간 중

참고자료로써 활용되었고 후에 교정 원고들이 책으로 일괄하여 묶이게 될 때 해당 참고자료도 함께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 저작 260편을 제외한 국중본의 총 작품 수는 3,017題4,454首 10,091편이며, 문체별 작품 수를 살펴보면 詩는 3,017題4,454首(간본: 詩 514題707首/賦3題3首), 疏와 啓는 52편(간본 31편), 書는 8,291편(간본 1,017편), 書贈은 257편(간본 0편), 묘도문자 등 기타 27종의 문체 1,491편(간본 344편)이다.

앞으로 국중본의 전체 작품을 문체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작품 수, 중복 제외 시 작품 수, 간본에 수록된 작품 수 등을 분석하여 그 특징, 성격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국중본과 간본 『梅山集』 간 관계 규명 및 타 기관 소장 필사본 『梅山集』 異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梅山集』 간본. 한국문집총간 295~296
- [2] 『梅山集』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古朝46-가1088)
- [3] 『肅齋集』. 한국문집총간 311
- [4] 『立軒集』. 한국문집총간 속124
- [5]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朝鮮總督府. 1921.10.29.
- [6] 권경열. 2017. 문집 번역시 산견되는 저자 중복 사례 및 저자 비정. 한국고전번역학회. 『고전번역연구』, 8집.
- [7] 김우정. 2013. 한국 한문학에 있어서 壽序의 전통과 문학적 변주 양상.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51권.
- [8] 南陽洪氏禮史公派大宗中會. 『南陽洪氏禮史公派世譜』. 2004.12.
- [9] 노대환. 2008.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42.

- [10] 박학래. 2015. 梅山 洪直弼의 性理說 연구. 『국학연구』, 26.
- [11] 서찬규. 2011. 『임재일기』. 한국국학진흥원.
- [12] 신영주. 2015. 梅山 洪直弼의 儒道 존숭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한문고전연구』, 30권.
- [13] 이은주. 2015. 『筆寫本 梅山集의 傳記資料의 價値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aesanjip* wooden type. Korean Literary Collections in Classical Chinese. vol.295~296
- [2] *Maesanjip* Manuscrip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古朝46-가1088)
- [3] *Sukjaejip*. Korean Literary Collections in Classical Chinese. vol.311
- [4] *Ipheonjip*. Korean Literary Collections in Classical Chinese. suppl. vol.124
- [5] *The old book list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1921.10.29.
- [6] Kwon, Kyoung-yeol. 2017. A study on judgment the author of the same work. Society for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lassics. *Journal of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lassics*, 8.
- [7] Kim, Wo-jeong. 2013. A study on a conventional style and variational aspect of ‘Su-Seo(壽序)’ in the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lassics. The Society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51.
- [8] Clan of Namyang Hong’s family: Yesakongpa. *A Genealogy of Namyang Hong’s family: Yesakongpa*. 2004.12.
- [9] Roh, Dae-Hwan. 2008. Sallims Perception and Response to Reality under the In-law Government Joseon. *Han’guk Munhwa: Korean Culture*, 4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0] Park, Hak-rae. 2015. A study of Maesan Hong Jik-pil’s theory of the Nature and Principle. Korea Studies Adancement Center. *Korean Sudies*, 26.
- [11] Seo, Chan-kyu. *Imjaeilki*.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2011.05.
- [12] Shin, Young-ju. 2015. Study on Maesan Hong Jik-pil’s reverence of Confucian beliefs and creation of poetry and prose. *Journal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30.
- [13] Lee, Eun-ju. 2015. *A Study on the Biographic and Material value of Manuscript ‘Maesanjip’*. Master D.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kyunkwan Univ.

[부록] 224책의 형태서지사항 및 수록 작품 수 일람

책차	문체	張數	크기(cm)	행자수	작품 수	기타
1책	詩	102	31.1×21.5	10행20자	209題275首	
2책	詩	136	31.0×21.5	10행20자	226題408首	
3책	詩	140	31.6×20.0	10행20자	266題423首	
4책	詩	222	32.5×22.0	10행20자+烏絲欄 (217~마지막p)11행20자	530題694首	烏絲欄
5책	詩	142	32.5×22.0	10행20자	324題491首	
6책	詩	87	31.5×20.0	10행20자	200題324首	
7책	詩	79	31.4×20.5	10행23자	187題297首	
8책	詩	142	33.5×21.3	10행20자	266題423首	烏絲欄: 22.7×16.9cm
9책	詩	154	31.8×20.2	10행20자	371題462首	
10책	詩	84	31.3×21.3	10행20자	196題276首	
11책	詩	57	32.8×22.0	10행20자	140題177首	
12책	詩	65	32.8×21.4	10행20자/11행20자	76題139首	
13책	疏	19	32.6×23.8	12행17자	1편	
14책	疏/啓	25	32.5×22.0	10행20자	7편	
15책	疏/啓	172	32.8×22.4	10행20자	43편	
16책	書	372	32.8×22.2	10행20자	150편	
17책	書	290	33.6×22.6	10행20자	138편	
18책	書	184	31.8×20.0	10행20자	90편	
19책	書	209	32.8×21.4	10행20자	99편	
20책	書	239	33.0×22.2	10행20자	106편	
21책	書	152	32.2×20.9	10행20자	73편	
22책	書	290	32.1×19.9	10행20자	149편	
23책	書	160	32.9×19.8	10행20자	71편	
24책	書	204	30.1×20.2	10행20자	72편	
25책	書	255	30.2×20.1	10행20자	114편	
26책	書	231	32.2×20.2	10행20자	68편	
27책	書	119	33.0×20.4	10행20자	41편	
28책	書	220	36.2×22.8	10행20자	54편	
29책	書	171	35.1×22.8	10행19~20자	74편	
30책	書	175	29.3×21.1	10행20자	40편	
31책	書	257	34.9×22.0	10행20자	112편	
32책	書/雜著	274	32.9×21.1	10행20자	144편	
33책	書	253	35.4×22.6	10행20자	123편	
34책	書	152	33.6×21.4	10행20~21자	56편	烏絲欄(사주쌍변):22.8×17.1
35책	書	254	33.3×21.3	10행19~20자	90편	烏絲欄(사주단+쌍변):23.0×17.3
36책	書	158	33.5×21.5	10행20자	55편	烏絲欄:22.6×17.0
37책	書	174	33.5×21.5	10행20자	65편	烏絲欄:23.3×17.4
38책	書	204	33.5×21.4	10행20~21자	73편	烏絲欄(사주쌍변):23.0×17.0
39책	書	140	33.7×21.8	10행20자	57편	烏絲欄:23.0×17.0
40책	書	130	33.5×21.5	10행20자	53편	烏絲欄:22.7×17.0
41책	書	138	33.9×21.3	10행20자	78편	
42책	書	220	33.5×21.4	10행20~22자	54편	烏絲欄:22.4×17.0
43책	書	148	33.6×21.5	10행20자	60편	烏絲欄(1~146p):22.8×17.2, 147~148p은 백면에 기록
44책	書	130	33.9×21.4	10행20자	69편	
45책	書	79	33.0×21.4	10행20자	32편	
46책	書	139	33.0×21.5	10행20자	57편	

책차	문체	張數	크기(cm)	행자수	작품 수	기타
47책	書	223	35.0×23.5	10행20자	82편	
48책	書	202	33.0×21.8	10행20자	110편	
49책	書	175	33.5×22.5	10행20자	105편	
50책	書	161	34.2×22.7	10행20자	57편	
51책	書	163	35.3×22.8	10행20자	57편	
52책	書	242	36.7×23.4	10행20자	77편	
53책	書	69	36.0×23.4	10행20자	23편	
54책	書	85	34.3×23.4	10행20자	33편	
55책	書	164	31.5×23.2	10행20자	60편	
56책	書	224	32.8×21.7	10행20자	114편	
57책	書	208	33.1×22.8	10행20자	100편	
58책	書	256	37.0×23.9	10행20자	91편	
59책	書	152	35.7×23.2	10행20자	55편	
60책	書	97	31.7×21.5	10행20자	37편	
61책	書	131	29.1×22.2	10행20자	47편	
62책	書	114	33.0×22.1	10행20자	40편	
63책	書	191	33.9×22.6	10행20자	83편	
64책	書	130	31.8×22.0	10행20자	50편	
65책	書	123	31.7×22.0	10행20자	61편	
66책	書	229	31.7×22.0	10행20자	107편	일부 烏絲欄(21~29/224~마지막p): 19.6×17/22.4×17.0
67책	書	247	31.6×21.3	10행20자	77편	
68책	書	232	31.6×21.5	10행20자	118편	
69책	書	94	31.5×21.5	10행20자	45편	
70책	書	90	31.4×21.4	10행20자	37편	
71책	書	183	33.0×21.2	10행22자	79편	일부 烏絲欄(94~135p):24.3×18.8
72책	書	101	31.6×21.5	10행20자	47편	
73책	書	105	32.5×20.1	10행22자	53편	
74책	書	203	30.9×21.6	10행20자	70편	
75책	書/墓碣銘	88	31.4×21.5	10행20자	29편	
76책	書	187	33.1×23.1	10행20자	75편	
77책	書	308	34.4×23.1	10행20자	99편	77~9책 금계이봉수에게 보낸 편지
78책	書	162	34.3×23.2	10행20자	53편	
79책	書	193	34.2×23.2	10행20자	58편	
80책	書	119	33.4×21.8	10행20자	41편	
81책	書	176	33.2×21.8	10행20자	78편	
82책	書	234	30.0×21.6	10행20자	108편	
83책	書	46	31.7×21.5	10행20자	21편	
84책	書	132	30.9×21.9	10행20자	53편	
85책	書	106	30.9×22.0	10행20자	51편	
86책	書	167	31.0×21.9	10행20자	71편	34p 첨지. 일부 烏絲欄(92~138p): 24.5×19
87책	書	205	30.8×21.1	10행20자	106편	
88책	書	190	30.8×21.0	10행20자	81편	
89책	書	241	31.9×21.6	10행20자	98편	일부 烏絲欄(86~98p):22.3×16.8
90책	書	239	30.7×21.0	10행20자+11행21자	102편	일부 烏絲欄(1~24/126~135p): 21.9×17/22.2×17.3
91책	書	167	32.3×21.8	10행20자	56편	
92책	書	126	32.4×22.0	10행20자	52편	
93책	書	188	32.3×21.8	10행20자	63편	권수제/서목명 없이 바로 본문 시작(01p)

책차	문체	張數	크기(cm)	행자수	작품 수	기타
94책	書	89	32.2×21.6	10행20자	34편	권수제/서목명 없이 바로 본문 시작(01p)
95책	書	79	30.2×22.1	10행20자	34편	권수제/서목명 없이 바로 본문 시작(01p)
96책	書	126	30.0×21.7	10행20자	47편	
97책	書	103	32.3×21.5	10행20자	43편	
98책	書	104	30.1×22.0	10행20자	41편	
99책	書	130	30.2×22.0	10행20자	53편	
100책	書	114	32.1×21.5	10행20자	57편	
101책	書	81	32.2×21.5	10행20자	37편	
102책	書	78	30.9×21.9	10행20자	29편	
103책	書	135	31.0×21.9	10행20자	65편	
104책	書	172	29.8×21.6	10행20자	52편	
105책	書	116	32.2×21.5	10행20~21자	35편	권수제/서목명 없이 바로 본문 시작(01p)
106책	書	112	31.9×21.6	10행20자	36편	
107책	書	176	33.3×21.2	10행20자	102편	
108책	書	144	31.8×21.4	10행20자	74편	
109책	書	184	33.0×22.2	10행20자	103편	
110책	書	242	33.3×22.2	10행20자	125편	
111책	雜著(洪×)	103	34.5×23.2	12행24자	35편	요내, 정지방 등이 저술한 성리학 + 서학 관련 논변 모음집
112책	書	172	30.2×22.2	10행20자	52편	
113책	書	195	33.0×22.2	10행20자	79편	
114책	書	135	31.8×22.5	10행~11행20자	53편	
115책	書/詩	177	31.3×21.2	10행20자	1題1首/95편	
116책	書	211	33.5×21.1	10행20자	119편	
117책	書	279	33.5×21.3	10행20자	182편	권수제/서목명 없이 바로 본문 시작(01p)
118책	書	138	33.4×21.2	10행20자	38편	
119책	書	74	29.7×21.1	10행20자	28편	
120책	書	208	29.9×21.1	10행20자	84편	국중 이미지 일부 제목누락. 일부 烏絲欄(17~24/141~150/152~157 p): 23.5×16.7/22.3×17.2/22.1×17.1
121책	書	111	31.3×21.2	10행20자	42편	
122책	書	58	25.6×18.5	10행24자	24편	일부烏絲欄(21~마지막p): 22.8×15.5
123책	書	78	29.8×21.1	10행22자	32편	
124책	書	166	31.3×21.2	10행20자	55편	
125책	書	148	33.7×21.5	10행20자	72편	권수제/서목명 없이 바로 본문 시작(01p)
126책	書	130	31.4×21.2	10~11행20자	27편	
127책	書	122	33.3×21.2	10행20자	33편	
128책	書/詩	56	29.5×19.5	12행28~31자	1題5首/34편	
129책	書	90	29.8×21.0	10행20자	43편	
130책	書	174	33.4×21.2	10행20자	67편	
131책	書	79	33.5×21.4	10행20자	35편	
132책	書	176	31.3×21.2	10~11행20자	22편	
133책	書	109	33.8×21.6	10행20자	37편	
134책	書贈	136	33.7×21.4	10행20자	40편	국중 제공 이미지 전체 상하좌우 잘림
135책	書	64	33.3×21.0	10행20자	38편	
136책	書	164	33.8×21.7	10행20자	62편	
137책	書	76	33.2×21.0	10행20자	23편	
138책	書	181	30.0×20.8	10~11행20자	69편	일부 烏絲欄(116~128p): 22.7×17.3
139책	書贈/書/詩	55	27.3×18.3	10행20자	4題7首/24편	본문 권수제 梅山遺稿. 詩.

책차	문체	張數	크기(cm)	행자수	작품 수	기타
140책	書/詩/墓誌銘	68	27.4×17.4	12행20자	2題10首/26편	표제지에 홍일순의 문집鰲谷集이 붙어있다고 적혀있으나, 실제×
141책	書贈	140	20.2×12.8	10행20자	46편	
142책	書贈	144	36.6×23.4	10행20자	30편	
143책	書贈	139	33.5×21.9	11행20자	47편	
144책	書贈	58	33.5×21.8	10행20자	20편	권수제/서목명 없이 바로 본문 시작(01p)
145책	書贈	109	31.8×21.7	10행20자+13행28자	33편	표제지에 145책 수록인명에서 李士仁 누락
146책	書贈/書	106	33.5×21.4	백지11행21자+烏絲欄11행30자/10행20자	30편	일부烏絲欄(33~40/62~64/69~72/85~87/95~96p):24.4×18.8/29.6×20/24.5×18.8/22.0×14.8/22.1×15.1
147책	雜著(洪×)	125	32.0×20.0	10행20자	102편	김중후, 김양행의 醒心錄 전체(上,中,下) 수록
148책	題/書贈/跋/書/序/祭文/祝文	54	32.0×20.0	10행20자	26편	일부 烏絲欄(42~49p):23.5×19.5
149책	贊/箋/狀/昏書/雜著/祝辭	58	33.8×21.5	10행20자	37편	
150책	雜著/銘/記/墓碣銘/墓碑銘/祭文/碑/序/祝文行狀	68	36.6×23.5	10행20자	17편	국중 원문 이미지 36p~마지막=212책 이미지 중복(오류)
151책	序	81	32.8×21.6	10행20자	22편	
152책	序	66	32.8×21.6	10행20자	16편	권수제/서목명 없이 바로 본문 시작(01p)
153책	序	85	31.5×21.6	10행20자	24편	
154책	序	100	32.5×21.8	10행20자	32편	
155책	序	63	31.5×21.6	10행20자	17편	
156책	序	93	31.5×21.7	10행20자	25편	
157책	序	180	32×22.2	10행20자	45편	
158책	序	117	32.7×21.5	10행18~20자	34편	
159책	序	130	31.8×21.6	11행20자	31편	일부 烏絲欄(97~100/105~112p):21.8×14.5/21.5×15.5
160책	記	172	33.7×21.5	10행19~20자	42편	烏絲欄:22.3×17.8
161책	記	102	33.6×21.4	10행20자	29편	烏絲欄:22.7×17.0
162책	記	135	32.8×21.6	10행20자	29편	일부 烏絲欄(처음~5p):24.4×19
163책	詩/記	31	33.8×21.5	10행20자	1題3首/7편	
164책	題跋	99	33.9×21.6	10행20자	38편	
165책	題跋	139	32×22.2	10행20자	47편	
166책	題跋	133	32.6×21.6	10행20자	50편	
167책	贊/銘/箋/狀/祝辭/昏書	90	32.5×21.6	10행20자	82편	
168책	祭文	176	33.8×21.5	10행20자	34편	
169책	祭文	160	32.5×21.6	10행20자	38편	
170책	祭文	148	34.3×21.6	10행20자	39편	
171책	祭文(洪×)	72	31.5×19.8	11~12행28~30자	32편	제목 없이 제문32편 수록
172책	告祝	104	32.4×21.7	10행20자	93편	일부 烏絲欄(89~90p):24.6×19.0
173책	哀辭	73	31.9×22.1	10행20자	12편	
174책	哀辭	45	33.8×21.6	10행20자	8편	
175책	墓碣銘	83	33.7×21.5	10~11행20자	23편	
176책	墓碣銘	85	33.4×21.4	10행20자	18편	
177책	墓碣銘	149	32.8×21.5	10행20자	34편	
178책	墓碣銘/書	168	33.5×22.2	10행20자	34편	일부 烏絲欄(89~90p)
179책	墓碣銘/墓表	81	33.4×21.6	10행20자	20편	
180책	墓碣銘	91	33.5×21.4	11행20자	22편	
181책	墓碣銘	94	33.5×22.1	10~11행20자	13편	
182책	墓碣銘	134	33.6×21.3	10~11행20자	23편	

책차	문체	張數	크기(cm)	행자수	작품 수	기타
183책	墓誌銘	201	32.8×21.5	10행20자	31편	일부烏絲欄(55~66, 90~104, 109~115p):19.5×16.5/24.6×19.5
184책	墓誌銘	148	33.5×22	10~11행20자	21편	
185책	墓誌銘/書/墓碣銘	87	33.5×22.1	10행20자	12편	일부 烏絲欄(34~35p):22×16.8
186책	墓誌銘	151	33.5×22.3	10행20자	18편	
187책	墓誌銘	79	33.5×22.2	10~11행20자	15편	
188책	墓誌銘	58	33.5×22.3	10~11행20자	7편	
189책	墓表/墓誌銘	107	33.5×22.2	10행20자	19편	
190책	墓誌銘	116	33.3×21.6	10행20자	22편	
191책	墓誌銘	73	33.3×21.5	10행20자	12편	
192책	墓誌銘/墓碣銘	93	33.4×21.6	10~11행20자	7편	
193책	神道碑	126	33.3×21.6	10~11행20자	12편	
194책	神道碑/碑	209	33.5×21.4	10~11행20자	24편	일부 烏絲欄(182~187p):23.7×17.5
195책	墓誌銘/墓表/祭文/墓碣銘/行狀/諡狀/神道碑	130	32.8×21.4	10행20자+11행21자	21편	
196책	神道碑/碑	127	33.4×21.5	10~11행20자	15편	
197책	神道碑/墓誌銘/祭文	54	33.4×21.4	10행20자	4편	
198책	行狀/諡狀	228	32.9×20.8	10행20자	20편	
199책	行狀/遺事	135	31.5×21.3	10행20자	13편	
200책	行狀	165	33.0×21.9	10행20자	8편	
201책	行狀	87	31.3×19.4	11행20자	1편	1명의 행장
202책	諡狀/行狀	136	31.2×21.1	11행20자	19편	
203책	行狀	12	32.7×21.8	10행20자	1편	烏絲欄:21.7×15.8
204책	行狀	28	31.3×19.4	6행16자	1편	烏絲欄:22.7×15.2
205책	致祭文+行狀+墓碣銘(洪×)	40	23.1×22.4	14행20자	3편	
206책	遺事/傳	122	32.8×21.8	10행20자	29편	
207책	遺事/行狀/傳	86	32.9×21.8	烏絲欄 12행24자 + 백지11행20자	22편	일부 烏絲欄(1~6p):28×19.9
208책	傳	162	31.3×21.0	10~11행20자	43편	
209책	雜錄	235	29.9×20.8	10행19~20자	1편	간본 잡록과 다른 내용의 글
210책	雜錄	221	32.7×21.9	10행20자	1편	간본에 수록된 잡록
211책	雜錄	126	34.0×21.7	10행20자	1편	
212책	書/書贈/詩/墓誌銘/序/記/墓碣銘/墓碑銘/祭文/碑/行狀	87	37.4×23.7	10행20자	1題2首/33편	150책 국중 제공 원문 이미지와 중복(오류)
213책	詩/書/祭文	37	31.4×20.0	10행20자	4題12首/16편	
214책	墓碣銘/書/書贈	82	34.5×21.7	10행20자	32편	
215책	詩/書	174	31.3×19.4	10행20자	8題18首/39편	
216책	記/墓誌銘/書/書贈/詩	32	30.0×21.0	10행20자	1題3首/10편	烏絲欄:24.3×18.0
217책	詩/疏/祭文/祝文/書贈/墓碣銘/墓誌銘	58	35.0×23.3	10행20자	3題4首/8편	표제지의 기재된 목록대로 수록 안 되어 있음
218책	世系(洪×)	30	32.0×21.6	행자수부정	26편	
219책	序(洪×)	28	30.6×19.6	10행20자	6편	烏絲欄:21.3×16.0
220책	祭文(洪×)	49	31.6×19.6	12행30자	32편	
221책	雜識/書	107	30.6×19.5	10행20자	6편	
222책	雜著(洪×)	160	32.9×2.8	10행24~6자	9편	烏絲欄(69~70p):25×16.8.言行類編
223책	雜著(洪×)	156	36.3×23.2	10행26~7자	5편	言行類編
224책	行狀+墓碑銘(洪×)	159	28.6×18.4	10행16~20자	10편	烏絲欄(84~125/126~150p):19×14.2/21.1×16
총합		30,914			3,017題4,454首 10,351편	